

성별	남	나이	70세	직종	할석공	직업관련성	있음.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-

## 1. 개요

근로자 백○○은 1985년부터 약 25년간 공사현장에서 벽체, 바닥, 천정, 내장재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다. 3~4년 전부터 호흡곤란, 기침, 가래 증상으로 2009년 12월 진폐증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이며 2010년 5월, 6월/2회, 총 3회 실시한 소음검사 결과상 소음성 난청 진단을 K 병원에서 받았다.

## 2. 작업환경

1985년부터 2009년까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. 각종 공사현장에서 벽체, 바닥, 천정 등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거나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골조 후 벽체가 변형된 곳을 떼어 내거나 바닥을 깨는 일을 하였다. 하루에 약 9시간가량 근무하였으며 30분 정도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면 10분 가량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.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없이 스티로폼을 직접 만들어 착용하였다.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작업환경 측정 또한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다. 재현을 통한 할석작업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최고치 117.5 dB(A)이었다.

## 3. 의학적 소견

10년 전부터 이명과 청력저하 증상이 있었으나 진료 받은 적은 없다. 2008년, 2009년 일반검진에서 1000HZ에서 40 dBHL 미만 소견을 보였다.

마지막 근무지인 S건설에서 업무 시작 후 약 24일 쯤 일반검진에서 1000HZ에서 15/15 dBHL 결과를 받았다. 퇴사 후 호흡곤란, 기침, 가래 등의 증상으

로 2009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약 6개월 뒤인 2010년 5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. 군에서의 사격과 폭격 등 소음 노출력은 없었다. 중이염이 의심되는 과거력은 없다. 현재 고혈압, 백내장 외에 다른 질환은 없는 상태이며 흡연은 6-7개피/10년갑, 음주력은 매일 반주로 소주 1-2잔을 하며 매주 1-2회 가량 소주 1/2병 가량을 반주로 마신다.

#### 4. 결론

백○○의 감각신경성 난청은

- 1987년부터 2009년으로 약 23년간 할석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,
- 재현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노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음 노출 수준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고,
- 할석 작업 외에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고 청력이 손실될만한 이질환에 이환된 과거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